

열린세상



정진탄 뉴미디어본부장 겸 논설위원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복합쇼핑몰의 있고 없음'의 차원에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복합쇼핑몰이 무엇이냐고,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냐 식의 인식과 논리다. 이런 사고 기저에는 그간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정지권, 유치 과정 참여를 놓고 벌어지는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 양상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듯하지만, 애초 복합쇼핑몰을 거대 상가건물쯤으로 여기는 시각에서 비롯한 바가 없지 않다.

새 문물에 대한 심리적 저항

얘기를 진전시키기 전에 먼저 이런 케이스를 보자. 지인 중 스타벅스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가 있는데, 그는 왜 그런 태를 가냐고 타박한다. 광주 거주 50대인 그는 대학 재학 당시 운동권에 몰든 적이 있다. 그는 외국 자본의 상품화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아직도 그런 인식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답답한 필자는 그에게 미국 경제뉴스매체 블룸버그 통신을 한 번 보게 하면 어떻게 하는 마음이 굴뚝같았다. 국경 없이 넘나드는 자본의 속성을, 국가마다 힘쓰는 투자 유치를, 여기서 제조되는 상품 유통을 깊게 인식하게 하려는 뜻이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이 지인은 외국 자본 또는 상품에 대한 공부 부족해서 스타벅스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진 않았을 것이다. 지극히 심리적 이유에서 연유했을 것이라 추측이 든다. 커피 좀 마시려면 누구나 찾아가야 한다는, 문화적 강요에 못 이겨 가는 듯한 미국 브랜드

스타벅스가 싫었을 것이다. 왜 굳이 메이저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느냐, 동네 알뜰커피도 있는데, 특별히 다른 맛이 있느냐는 저항감의 발로일 수 있다.

이런 심리를 좀 확장하면 복합쇼핑몰에 대한 피로감도 백화점과 마트처럼 이런저런 유통업체가 즐비한데 왜 굳이 복합쇼핑몰을 들여오려고 하느냐,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심리적 저항에서 부유하는 것일 수 있겠다 싶다. 복합쇼핑몰, 또는 관련 논쟁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는 이들의 인식과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에 어떤 걸 강요할 순 없지만 여타 사람의 선택, 즉 스타벅스든 복합쇼핑몰이든 그 필요성에 목말라 하는 이들의 선택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문물, 외국 상품에 대한 특정세력의 심리적 저항에는 광주와 자본주의 시장 간 긴밀성이 낮은 점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은 옳다. 신조류에 대한 접촉의 장이 타 광역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이로 인해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 감소할 수밖에 없다. 광주지역에 왜 그런 기회의 장이 열렸는지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우선 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다기 때문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지역에서 자본주의 요소들이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다 보니 이를 떠받칠 기제가 필요하다. 국가 주도, 국가 지원형으로 추진되는 현안 사업이 나오기 마련이며, 이번 복합쇼핑몰 추진에도 국가 주도형이란 명칭이 붙어다. 정부와 여권이 호응하지 않자 국가 지원형으로 급 톤다운된 바 있다. 물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으니 그 실현을 위해 정부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세워달라고 할 이유는 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 복합쇼핑몰을 지어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으며 또 그럴 리 만무하다. 광주시는 9,0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다가는

란을 빛아 이익고 그렇게 예산 책정 못하겠으면 어떻게 지원할지,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라는 과정에서 광주형 복합쇼핑몰이 국가 지원형으로 건립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광주 지역민이 생떼를 쓴다고, 타 지역으로부터 호된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전라도는 왜 항상 그런 근성을 보이느냐며 매우 상스러운 언어가 온라인과 언론매체 등에서 나왔다.

때에 따라서는 국가와 정부가 지역 배려차원에서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기능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복합쇼핑몰이란 면 전라도 격하를 불러오는 요구와 행태는 자제함이 옳다. 설령 윤 대통령이 국가 주도형으로 해준다 해도 광주에서 이런 제안을 덜컥 받는 게 합당한지 논의해봐야 한다.

또 윤 대통령이 지역 발전을 위해, 도시 경쟁력을 위해 복합쇼핑몰 유치를 이수화하고, 업체 공모를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제스처라도 취하는 것이 상도덕이고 정치도덕일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싫더라도, 그가 복합쇼핑몰 유치를 순전히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서 던진 공약이라고 해도 말이다. 진정 '광주다움'의 가치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광주 사회구성체 재정립

기존 도시질서의 관행을 깨고 현대인 삶에 새로운 문화를 부여하는 복합쇼핑몰은 개인의, 집단 일각의 심리적 저항을 부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통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퇴화한 듯한 지역 내 시장 유전자를 깨우는 일이며 자본·기업을 약으로만 보는, 흑시 있을지 모를 이상한 망령을 내뿜는 일이다. 그리고 낡은 이념에 얽매이거나 눈앞의 이익에 매몰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세력 재편의 계기일 수 있다. 복합쇼핑몰은 광주 사회구성체 여러 곳을 비추고 재정립하게 하고 있다.

물순환 정책 소홀해서는 안된다

올해는 가뭄으로 물 걱정을 하고 있지만 2020년 8월에는 큰 비로 광주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 심각해진 기후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광주광역시 수립한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22-2026)에서도 앞으로 물과 관련한 재난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구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극한 기후지수 예측에 따른 대응의 긴박함과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가뭄과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즉 재해에 대한 일상적 대처가 더욱 중요해졌다. 물 관련 재해에 대한 일상적 대응 방안으로, 물 재이용을 비롯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대담 중심의 수자원 관리는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는 있겠으나, 이에만 집중 의존했을 시에 극한 가뭄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 수요 관리를 비롯한 수자원 확보 특히 분산형 빗물관리,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 관리, 투수층 확대, 중수도 활용 등 건전한 물순환 체계가 공고해져야 하는 이유이다.

2021년 기준, 광주광역시에 빗물 이용시설은 공공 및 민간 건물 5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로는 부족하다.

물 재이용과 빗물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현 법과 조례에 근거한 의무 대상 외 건축물

에 대해서도 빗물 시설이 더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 빗물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도 살펴야 한다. 광주광역시의 불투수면적비는 시가지지역기준으로 56.3%에 달한다. 빗물저류 시설과 투수층 면적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수자원 확보와 함께 빗물이 일시에 유출되는 것을 완화시킴으로써 수해를 저감시키는 잇점이 있다.

또한 집중강우시 하천과 지하 우수로의 홍수 분담력을 평가하는 등 도시홍수에 얼마만큼 대비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빗물받이, 우수로 등 배수시설에서부터 빗물 유출 시설인 배수펌프장 등 시설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건축,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 적절성, 재해 안전 적응력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빗물 활용을 비롯한 물순환의 중요성, 물 재해 대책에 대한 여러 대안들이 한두해 이야기 된 것이 아니다.

광주의 경우 물순환선도도시 사업 등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긴 하다. 그럼에도 도시 한복판에서 물난리로 사람이 희생되는 사고를 보고, 또 풍수기 말미에 가뭄을 걱정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기후위기 국면을 잘 대비 하고 있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모두가 묻고 싶을 것이다. 일상적 대책인 건전한 물순환 정책에 소홀함은 없는지 말이다.

시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총력을

무등산권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위한 현장심사가 19-22일 광주·담양·화순 등에서 이뤄진다. 국제 지질공원 전문가들은 지질 명소와 역사문화 명소, 지역주민 협력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국내에서 제주, 정송에 이어 세 번째로 인증을 받았으며, 4년 만에 첫 재인증 도전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자연유산의 가치를 지닌 곳으로, 유네스코가 이를 보존하고 그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해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증하고 있다. 이번 재인증을 위한 심사는 19일 환영 리셉션, 20일 무등산 주상절리대·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설부지·지오빌리지 청풍마을, 21일 고인돌 유적지와 서유리 공룡화석지보조각 등 화순권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21일에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담양습지 등 담양권역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현장심사 위원과 지자체 관계자가 모여 현장

심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4년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관리 상황을 최종 심사하게 된다. 특히 지질 교육과 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역 주민과의 협력사업, 지질명소 보존 노력, 지질공원 관리 구조 등을 평가하게 된다. 재인증 여부는 내년 4월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가려진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해왔으나 관리체계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센터 건립과 지질공원 연계 지오브랜드 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물론 행정안전부 협의와 지자체 운영심의위원회, 조례·정관 제정 등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장애가 있었다지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현장심사 기간 해당 지자체 4곳은 관계 당국과 인증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질 명소 현장 점검과 시설물 관리, 재인증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여수 여자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해 국제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난 여수시. 기후를 매개료한 박람회를 개최했음에도 여수는 해양보호구역이나 세계자연문화유산이 없어 늘 부족함이 컸다. 이러한 때 여수시의회 주관으로 최근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 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습지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2020년에는 전 세계 해양 면적의 약 7.5-8%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바다, 조간대, 해저와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 법 제도와 기타 관리수단에 의해 보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해양보호구역이 어업과 관광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양보호구역

운동의 시작은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 이후 글로벌 해양보호구역 면적 목표는 10%로 설정되는 국제적인 목표가 세워졌다. 하지만 2010년까지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지정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중 여수시를 비롯해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에 걸쳐 이뤄진 여수만이다. 여자만은 현재 순천만과 보성별고갯벌만이 일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수에서 백인숙, 문갑태 시의원을 중심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 시민사회, 주민들의 참여로 여자만 전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 여자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

도시철도 공사 시민안전 최우선돼야

기지사침



민찬기

사회부 기자

쉽게 지워지고 흔적들이 남아있다.

다른 지하철 공사 인근 도로 상황도 마찬가지다. 기존 5차선 도로는 갑작스럽게 Y자로 갈라져 가운데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1차선과 4, 5차선만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고, 끼어들기 하는 등 교통 체증도 심각하다.

또한 최근 서구 풍암동 지하철 공사 인근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가 버스에 치어 숨졌으며, 지하철 공사 이후 백운교차로에서는 60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시철도공사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정비에 늦잠을 부리고 있다. 모든 민원에 맞춰 정비하기엔 예산이 부족해 힘들다는 궤변만 내놓고 있다. 결국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공사가 착공한지 2년이 넘어서야 부랴부랴 안전 점검 조치 계획을 세웠다.

더군다나 백운교차로는 지하철도 공사가 지하철 공사 완공보다 2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고 위험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도시철도와 관련기관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해 나서야 한다. 그리고 시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 곳곳의 위험요소를 먼저 찾아내고 해결해야 한다. 시민들도 획기적인 교통 소통 대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교통 감수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광주 시내 도로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차선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로 인해 인근 도로는 차선이 수시로 바뀌고 현장 가림막 등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지만,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안전 조치와 관련 예산 등의 부족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지난 2020년 9월 착공해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하철 공사가 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차선이 변경이 잦고 도로폭이 좁아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철 공사 인근 백운교차로의 경우 차선이 수시로 바뀌면서 노면 표시를 위해 덧칠해 운전자들의 혼선을 빚고 있으며, 차량 유도선 또한

기고



최지현

광주시의원

지난 8월 초 수도권 집중호우와 최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컸다. 수도권과 경남북 지역에서의 상황은 심각했고, 재해에 대한 대처 부족으로 소중한 목숨까지 잃어서 모두의 안타까움을 샀다. 특히 저지대 등 재해 취약지역에서의 인명 피해는 재난 불평등과 위급상황 발생에 대한 정부의 대처 부실이라는 현실과 허점을 보게 되어 상실감도 컸다.

홍수와 태풍으로 수해가 큰 지역이 있었던 반면, 광주전남권 등 우리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물관리 비상국면에 있다. 주암호는 저수율이 30% 이내로 떨어져 8월 30일에 가뭄심각 단계에 들어갔고, 태풍이 지나간 현재도 저수율이 여전히 낮아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광주시민의 제1식수원인 동복호 상황도 마찬가지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앞은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시급하지 않은 물 이용은 최소화하는 등 물 수요관리에 유사 비상 상황으로 대처하고 있다.

Table with newspaper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

Advertisement for Jeonnam Daily newspaper, featuring the logo and a QR code.